

‘法名’, 불교가 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일반화

법명 해설서전

조계종 포교원 엮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3만 5천원



출가자가 받는 승명 그리고 오계나 보살계를 수지하고 재가자들이 받는 법명은 형식이나 절차는 다르지만 모두 계(戒)를 수지할 것을 서약하면서 받는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나 초기 불교 시대부터 이런 전통이 서 있던 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보통 종족명이나 가계(家系)의 특징을 잡아 그 사람을 부르곤 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련의 이름은 각각 가계의 특징, 종족명에서 왔다.

사리푸타(사리불)의 속명은 우빠똌사(Upatissa)였다. 하지만 출가 이후에는 사리푸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사리푸타라는 이름을 그대로 풀면 ‘사리의 아들(putta)’이라는 뜻이다. 바로 어머니의 이름이 루빠 사리였기 때문에 사리의 아들이

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또 다른 상수제자 목갈라나(목건련)는 종족의 명칭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의 경우 땅이 넓기 때문에 종족명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분하고는 했다. 우리식으로 치면 성(姓)에 해당하는다. 이런 식의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제자들 중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굳이 이를 구분하고자 ‘마하’ 등의 명칭을 붙이고는 했다. 마하가섭이나 마하가전연 같은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아예 라후라처럼 속가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 승단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율장에도 ‘법명’을 부여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흐름은 불교가 인도를 넘어 중앙아시아로 확대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불명(佛名)’이 정착된다. 동진 시대 도안(312~385) 스님은 불명이나 법명을 넘어 아예 일불 제자임을 뜻하는 석(釋)씨의 사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전까지 구족계를 받은 승려들은 자신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도안 스님은 모든 강물이 바다

에 들어가면 이름이 잃듯이 출가하여 사문이 된 사람은 석자가 된다고 한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의 구절을 따 출가자는 같은 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하튼 이후 중국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명을 내리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선종의 2조 혜가는 달마에게서 받은 법명이며 3조 승찬은 혜가에게, 4조

초기불교에는 법명 부여 기록 없어 불교 중국으로 오면서 ‘불명’ 정착 일본 ‘계명’, 한국 ‘법명’ 용어 사용 한국불교선 적극적으로 법명 해석

도신은 승찬에게, 5조 홍인은 도신에게, 6조 혜능은 홍인에게 각각 받은 법명이다.

기초에 자주 사용하던 법명에 대한 해설 뿐 아니라 경전에 등장하는 문구 등도 추가 수록한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동아시아에 고착된 ‘법명’은 중국, 한국, 일본이 각각 약간씩 다르게 해석하고 사용한다. 중국은 불명(佛名)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고 일본은 계명(戒名) 그리고 한국은 최근 들어 법명(法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나 삼국 중에서 한국은 이런 법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이나 일본은 보통 법명을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묻는 경우가 적는데 비해 한국불교는 적극적으로 이를 해석한다. 그래서 법명을 짓거나 받는 일은 한국불교에서는 꽤나 중요하다. 특히나 계를 받을 때마다 다른 법명을 받는 경우도 많아 법명을 짓는 방법부터 그 숫자도 무척 방대하다. 이 책은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법명을 일별하고 풀이한 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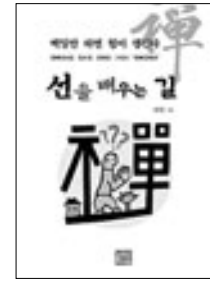
이 책에 포함된 표제어는 모두 8,382개이다. 그 양이 방대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법명은 물론 인도, 중국 승려의 법명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법화경> 등 경전에 등장하는 용어까지도 모두 법명의 사용 가능한 예로 보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체계는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한글 발음을 우선으로 한문을 병기하였다. 또한 법명의 해설에 있어서는 바라밀 실철을 원칙으로 삼아 그 뜻을 풀어나갔다.

김주일 기자

백일만 하면 누구나 힘이 생기는 선수행의 길

선을 배우는 길

대현 지음 | 울리브나무 펴냄 | 1만 5천원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해 항복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서 무력으로 점점 섬멸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간화선’, 간화선+위빠사나 통합한 수행 바람직하다고 주장 저자, “지도없이 손쉽게 수행 가능”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찬란한 존재감,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대현 스님은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뭣?’ 하고 화두를 쟁김으로써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해 무명 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위빠간화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한다.

위빠사나와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 수행은 특별한 수행처를 찾을 것 없이 일반 가정에서 누구의 지도 없이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저자는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찬란한 존재감,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대자유함을 이 책이 제시하는 ‘위빠간화선’을 나침반 삼아 나아가노라”며, 그 길은 결코 멀지 않다”며 “수행법을 1백일만 읽고 따라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hyunbul.com

“만공선사, 만해 스님께 독립자금 전달... 독립운동 관여한 증거”

만공의 구국정신

경허·만공 선양회 펴냄 | 웅산 스님 엮음



올해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 식민지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수덕사에서 지난 9월 20일 경허·만공 선양회 주관으로 일제 강점기 만공 선사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그 행적을 찾기 위해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아직 가려 내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 그 반열에 등극시켜 숭고한 애국심과 역사의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 받았다.

이어 덕송총림 수덕사 경허·만공 선양회 회장 웅산 스님(前 수덕사 주지)은 만공 스님에 관련된 그 간에 밝혀진 연구 자료와 언론에 기사화 된 사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제목은 <만공의 구국정신>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우선 만공 선사의 알려

지지 않은 공적이 주를 이룬다. 만해 한용운 스님에게 은밀히 독립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현재 생존해 있는 수연 스님(90)의 증언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책에 수록됐다. 웅산 스님은 “이 것은 그 시대상황으로 봐서 독립 운동에 직간접적인 중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로운 증언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수법 스님(전성암 선원장)의 글을 보면 “2008년 입학하신 원담 스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께 전해준 독립자금 이 돈 보따리를 수덕사에서 경성까지 갖고 간 사람이 바로 나(원담 스님)였다”고 했다”며 “나도 알고보면 독립 자금을 운반하는 큰 일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또한 수법 스님은 “만공 스님은 평소 만해가 없는 경성(서울)은 안간다고 할 정도였다”고 들었다”고 피력했다.

이번 책에는 몇 가지 저자의 제언도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그 하나는 독립운동가의 평가 기준과 공적 심사위원들의 사교가 객관적으로 냉철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만약에 특정 종교집단에서만 있던 사례라고 평가절하된다면 이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또한 저자는 지금까지 문

헌지 독립운동자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정부관계기관서 더욱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것 역시 민간단체나 개인 또는 후손이 숨겨진 증거를 입증해 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주지 않고 행정 편의의 임무 수행에만 급급하다면 정부 시책에 따른 기대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든가 웅산 스님의 주장이다.

책에는 이외에도 만공 선사가 어전회의에서 총독 면전에 대고 호통을 친 일화를 극찬한 기사를 비롯해 일제의 패륜적인 만행에 의거 창씨개명을 한 만공 선사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관련 논문들이 수록돼 있다. 웅산 스님은 “독립운동가 공적심사위원들의 직무와 관련해 제기된 유공자나 그 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생된 선열들의 행적을 연구하고 찾아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독립운동가 선정시 서류 심사뿐 아니라 직접 찾아보고 실사해 보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책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만공대선사가 1937년 일본 총독에게 일한(一喝)한 것을 기념한 덕송총림방장 설정 스님의 기념 휘호인 ‘대갈일성애수낙담(큰 소리로 일본 총독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 사기를 꺾어 놓음)도 수록해 놓아 눈길을 끈다. 김주일 기자



만공대선사가 1937년 일본 총독에게 일한(一喝)한 것을 기념한 덕송총림방장 설정 스님의 기념 휘호인 ‘대갈일성애수낙담’.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간화선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감한 저자는 목조선과 위빠사나, 간화선이 정상으로 가는 각기 다른 길일 수 있지만 세 길이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해 왔다.

저자는 “깨달음의 길은 결국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래 태양처럼 밝다는 것을 실감하고서 찬란한 삶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대자유함, 솟아 오른 해가

책속의 밑줄 긋기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는 삶은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서 풀어놓은 물과 같다. 이런 물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비춰볼 수 없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왜곡시켜 받아들인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빛을 진 것과 같게 하고, 이것이 사라지면 빛을 다 갖고 빛에서 벗어난 자유인과 같게 된다.

-실답게 수행하는 방식은 그저 고요

저자 대한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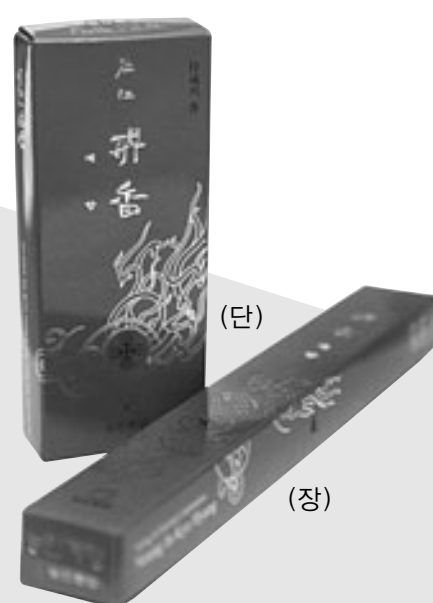
1968년 백양사로 출가했다. 강진 백련사에서 정일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서 안거 후 제방선원서 50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보다 걸어서 삼구(三句)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빠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주립선원에서 정진중이다.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묘한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Himalaya 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은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이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